

# 일본에 뺨 맞은 한국, 중국에 분풀이

## 윤석민 6이닝 완벽투... 이범호 2점 홈런



한국야구대표팀이 제2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2회 연속 2라운드에 올랐다.

김인식 감독이 이끄는 야구대표팀은 8일 일본 도쿄돔에서 벌어진 WBC 아시아라운드 패자부활 2차전에서 선발 윤석민의 호투속에 이범호의 2점 홈런 등 장단 10안타와 사사구 10개로 중국을 일방적으로 공략해 14-0, 7회 콜드게임승을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2연승을 거둔 일본과 함께 14일부터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벌어지는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됐다.

중국은 한 수 아래의 실력으로 평가됐지만 2라운드 진출 티켓이 걸려 있는 승부사조급도 방심할 수 없는 경기였다.

김인식 감독은 지난 해 평균자책점 1위를 차지했던 윤석민을 선발로 내세웠고 윤석민은 기대대로 투구수 70개만으로 6이닝동안 2안타만 허용했고 삼진은 4개를 걸들이며 마운드를 완벽하게 지배했다.

마운드에서 앞선 한국은 1회 이종욱과 정근우가 연속 볼넷을 고른 뒤 김현수가 우전 안타를 날려 선취점을 올렸고 김태균은 내야땅볼로 1점을 보태 2-0으로 앞섰다.

4회에는 이번 대회에 처음 3루수로 선발

출장한 이범호가 중국 두번째 투수 부타오를 상대로 좌측펜스를 넘어가는 2점아치를 그려 4-0으로 달아났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5회말 중국이 사사구 3개와 실책 2개로 무너지는 틈을 타 2안타만으로 5점을 추가해 9-0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한국은 6회에도 이대호의 2루타와 박기혁의 3루타 등으로 5점을 추가, 콜드게임으로 승부를 마무리했다.

이대호 대신 3루를 맡은 이범호는 혼자 3타점을 올렸고 앞서 2경기에서 무안타였던 유격수 박기혁은 4타수 2안타로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윤석민에 이어 7회초에는 정대현이 마운드에 올라 2타자를 요리한 뒤 마지막 타자는 임창용이 유격수 땅볼로 처리했다.

2회 연속 2라운드 진출에 성공한 한국은 9일 저녁 6시30분 도쿄돔에서 아시아 1위 자리를 놓고 일본과 최종전을 치른다.

한편 한국은 지난 7일 일본과의 경기에서 2-14, 7회 콜드게임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아시아라운드 1위를 차지한 팀은 상금 30만달러를 받게 되며 2라운드에서 1차전을 B조 2위와 치른다. 쿠바와 멕시코, 호주, 남아공이 속한 B조에서는 쿠바와 멕시코가 2라운드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8일 도쿄돔에서 열린 WBC 아시아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선발 윤석민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번홀 줄버디...6타차 뒤집어

## 신지에 LPGA 데뷔 세번째 대회만에 우승

### HSBC 위민스 챔피언스

'파이널 린'이 돌아왔다. 시즌 신지에(21·미래에셋)의 저력이 유감없이 나타난 짜릿한 한판 승부였다.

8일 싱가포르 타나메라 골프장(파72·6천547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선두에 6타 뒤진 채 최종 라운드를 맞은 신지에는 합계 11언더파 279타를 적어내 캐서린 헐(호주·9언더파 277타)을 2차 타로 따돌리며 대회 정상에 올랐다. 2라운드에서 트리플 보기를 적어내는 등 우승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신지에는 3라운드부터 맹추격을 펼친 뒤 4라운드에서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듬해를 목표로 했다.

신지에는 3번홀(파3)에서 그린 밖에서 친 칩인 샷을 그대로 홀에 집어넣는 등 1번홀부터 4번홀까지 4개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홀에 2타차까지 따라 붙어 압박을 가했다.

지난달 호주에서 열린 유럽여자프로골프 ANZ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우승하면서 상승세를 탄 헐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6번홀까지 타수를 줄이지 못하던 헐은 7번홀(파4)에서 홀까지 5m나 되는 버디 퍼트를 성공시킨 뒤 9번홀(파5)에서도 1타를 줄여 신지에는와 격차를 다시 4타차로 벌렸다.

헐보다 한조 앞서 출발한 신지에는 이 홀에서 세번째 샷만에 볼을 그린 위에 올린 뒤 4m짜리 버디 퍼트를 시도했지만 아깝게 빗나가면서 우승컵에서 멀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후반에 들어가면서 신지에는에게 다시 추격할 기

회가 왔다.

10번홀(파4)에서 어려운 퍼퍼트를 집어넣어 한숨을 돌린 신지에는는 11번홀(파3)에서 1타를 줄였고 헐은 10번홀에서 벙커와 러프를 오가다 1타를 잃어 두 선수간 격차는 2타로 다시 좁혀졌다.

결국 헐이 먼저 무너졌다. 헐은 13번홀(파5)에서 티샷을 당겨치는 바람에 왼쪽 숲으로 볼을 날려 버렸고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한 뒤 1벌타를 받고 세번째 샷을 해야 했다.

5타만에 볼을 그린 위에 올린 헐은 2퍼트로 홀아웃하며 2타를 잃어 순식간에 신지에는와 공동 선두가 됐다.

신지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15번홀(파5)에서 결정타를 날렸다.

신지에는는 세번째 샷을 홀 2.3m 지점에 떨어뜨린 뒤 버디로 연결시켰고 헐은 14번홀(파3)에서 티샷을 벙커에 빠뜨리며 고전하다 1타를 잃고 말았다. 순식간에 2타차 선두가 된 신지에는는 남은 3개홀에서 버디 퍼트가 빛나기면서 타수를 줄이지 못했고 헐이 17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1타차로 쫓아와 마지막 고비를 맞았다.

하지만 헐은 18번홀(파4)에서 티샷을 오른쪽 러프로 날려보내며 3번째 샷만에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보기로 홀아웃하면서 신지에는의 우승은 확정됐다.

신지에는의 우승에 빛이 가렸지만 브라질 교포 안젤라 박(21·LG전자)이 8언더파 280타로 공동 3위에 오르는 선전을 펼쳤다. 또 유선영(23·휴온스)과 제인 박(22)이 공동 6위(7언더파 281타), 김미현(32·KTF)이 공동 9위(6언더파 282타)에 오르는 등 한국 및 한국계 선수가 톱10에 5명이 포진했다. /연합뉴스



시즌 신지에(21·미래에셋)가 8일(한국시간) 싱가포르 타나메라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HSBC 위민스 챔피언스 4라운드 18번홀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인왕 넘어 상금왕까지...세계 골프 여제 첫 발

'한국여자골프의 지존에서 여제의 자리까지 넘는다'

신지에(21·미래에셋)가 8일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세번째 대회인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면 세계 정복의 야심찬 첫 발을 내디뎠다.

지난 해 LPGA 투어 정식 멤버가 아니면서도 3승을 올렸던 신지에는는 시즌 초반 부담감을 극복하고 일찌감치 우승을 차지했다. 올 시즌 투기의 자격으로 LPGA 무대에 뛰어든 신지에는는 이제 신인왕에서 상금왕까지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신지에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상금 30만달러를 받게 돼 총 상금 32만4천349달러로 상금 랭킹 1위로 뛰어 올랐다.

개막전인 SBS오픈에서 충격의 컷오프를 당하기도 했지만 '신인' 신지에는의 성적은 그리 나쁜 것은 아니었다. 태국에서 열린 혼다 LPGA 타이랜드 대회에서도 공동 13위에 올랐던 신지에는는 자신에게 집중되는 주위의 관심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다. 빨리 성적을 내야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신지에는는 이번 대회 2라운드에서 무리한 경기 운영을 하다 트리플보기를 적어내기도 했다.

이번 우승으로 신지에는는 부담감을 떨쳐 버리고 자신감을 완전히 되찾았다. 더욱이 LPGA 투어 대회가 20일 멕시코를 거쳐 26일 미국 본토로 무대를 옮기면서 신지에는의 장기인 정확한 드라이버샷이 위력을 떨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복싱 국가대표선발전

### 10~16일 고흥서 열린다

복싱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등 4개 대회가 10일부터 16일까지 고흥군 팔영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 주최, 전남아마추어복싱연맹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대표선발전 외에 제62회 전국신인아마추어선수권, 제41회 전국중·고 신인아마추어선수권, 제5회 전국여자신인아마추어선수권 등 4개 대회가 개최되며 800여명의 선수·임원이 참가한다.

2009년도 2차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전국 우수선수 발굴과 복싱 동호인 자문화대를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남아마추어복싱연맹이 전국 시·도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전남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고흥서 개막하게 됐다.

한편 고흥군은 7일 동안 개최되는 복싱 4개 대회가 앞으로 다가올 관광, 휴가 시즌과 연계되어 관광·고흥의 이미지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최적의 경기여건을 보유한 고흥군은 연중 전국단위 대회가 풍성한 지역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군정 스포츠마케팅 전략 및 지역 활력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흥=주각종기자 gjiu@

### 양용은 PGA 첫 우승 눈앞

### 혼다클래식 3R 단독 선두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생애 첫 우승을 눈앞에 뒀다.

양용은은 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가든스 PGA내셔널 골프장 챔피언스코스(파70·7천158야드)에서 열린 혼다클래식 3라운드에서 버디 1개를 보기에 1개로 맞바꾸 타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중간합계 7언더파 203타로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켰다.

2라운드에서 5타를 줄이며 선두 자리를 꿰찼던 양용은은 마지막 라운드에서도 1위를 지키면 2006년 11월 유럽프로골프투어 HSBC 챔피언스 이후 2년 4개월만 이자 PGA 투어에서는 처음 우승컵을 차지하게 된다.

3라운드를 통해 양용은은 버디 9개에 불과했지만 보기는 2개로 줄이는 안정적인 플레이로 선두로 올라갈 수 있었다. 특히 72.2%의 그린 적중률과 28.7개의 평균 퍼트수가 돋보였다. 양용은은 3번홀(파5)에서 러프와 벙커를 오가다 1타를 잃은 뒤 만회하지 못하고 패배를 이어갔다. /연합뉴스